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3229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의자 : 오승철 의원

1. 주 문 :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가. 하남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이미 수용 여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 성광학교는 일부 학년에서 모집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공급 체계만으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 유휴공간이나 신설학교를 활용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학급당 소규모 학생 편성과 강화된 교사 배치 기준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행·재정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임.
- 라. 이미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복합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애학생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전 학령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교육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마. 또한, 2025년 기준 하남시 원도심 지역에는 유희교실 총 7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산신도시 등 신설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어, 기존 학교 인프라를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바. 이에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하남형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복합특수학급 조성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함.

3. 이 송 처 :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
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장

4. 건 의 안 : 붙임

유휴교실과 신설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문

하남시의회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모든 아이가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합특수학급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하남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의 수용 여건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장시간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거나 교육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기준, 관내 특수학교는 일부 학년에서 모집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교육 체계만으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 유휴공간이나 신설학교를 활용하여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특수학교 신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미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복합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장애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단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교육 실현과 교육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하남시 원도심 지역에는 복합특수학급 조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유휴교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산신도시 등 신설학교 개교를 앞둔 현 시점은 사후 보완이 아닌 선제적인 특수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하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유휴교실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복합특수학급 조성 가능성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교산신도시 등 향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검토·반영하여, ‘장애 비동행’이 아닌 ‘장애 동행’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라.

2026년 2월 12일

하 남 시 의 회